

쏟아진 '국민연금 재테크'... 월 486만 원 받는 부부 나왔다

월 300만 원 이상 받는 부부 1533쌍... 2021년보다 7.8배↑
 평균 연금액은 103만 원... 액수 늘지만 적정 생활비엔 부족

남편과 아내 각자의 국민연금 수령액을 합쳐서 최고액을 받는 부부는 다달이 500만 원 가까운 금액을 손에 쥐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1월 말 현재 국민연금 부부합산 최고 연금액은 월 486만 원으로 조사됐다. 부부 각자의 월 수령액은 남편은 238만 원, 아내는 248만 원이었다.

이런 부부합산 최고액 수령자를 포함해 월 300만 원 이상 받는 부부 수급자는 1988년 도입된 국민연금 제도가 성숙함에 따라 계속 증가하고 있다.

부부합산 월 300만 원은 지난해 기준 적정 노후 생활비(월 324만 원)에 육박하는 금액으로 노후 생활하기에 풍족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아주 부족하지는 않다.

다만 부부합산 평균 연금액은 2019년 월 76만3000원에서 올해 1월 말 기준 월 103만 원으로 증가하는 등 계속 늘고 있지만, 적정 노후 생활비와 비교하면 아직은 부족하다.

남편과 아내의 국민연금 수령액을 합쳐 월 300만 원이 넘는 부부 수급자는 2017년 3쌍이 처음 나왔다. 이후 2018년 6쌍·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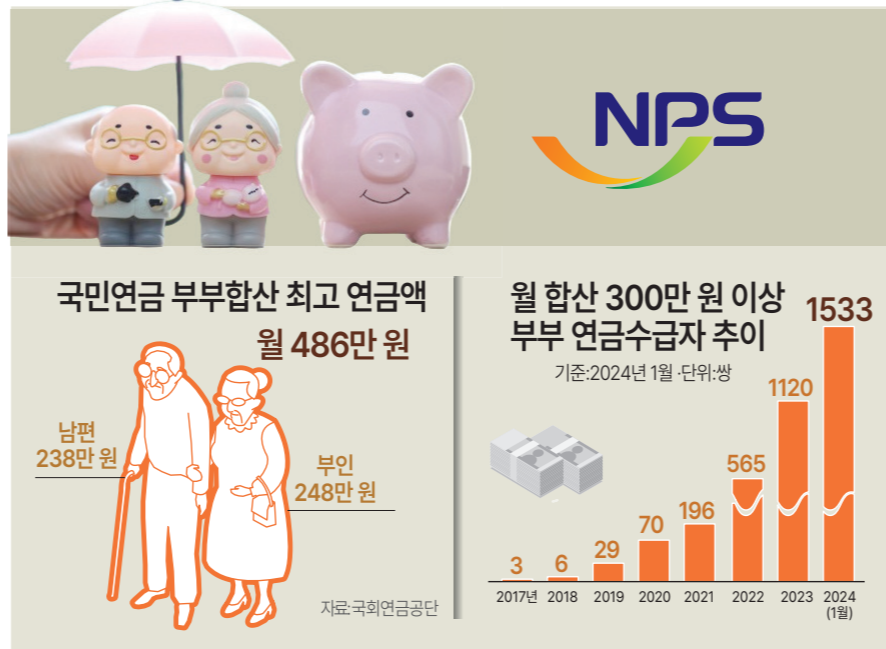
년 29쌍·2020년 70쌍·2021년 196쌍·2022년 565쌍 등으로 늘다가 지난해 1120쌍으로 1000쌍을 돌파했다. 이후 올해 1월 현재 1533쌍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 3년 전인 2021년(196쌍)과 비교해 7.8배로 늘었다.

올해 1월 말 기준으로 남편과 아내가 모두 다달이 국민연금을 타서 생활하는 전체 부부 수급자는 67만2000쌍으로 집계됐다. 2019년 말과 견줘 1.9 배로 증가했다. 전체 부부 수급자는 2019년 35만5000쌍, 2020년 42만7000쌍, 2021년 51만6000쌍, 2022년 62만5000쌍, 2023년 66만9000쌍 등으로 늘었다.

국민연금은 부부가 둘 다 국민연금에 가입해서 수급권을 획득하면 남편과 부인 모두 노후에 각자의 노령연금을 숨길 때까지 받는다. 노령연금은 연금 수급 연령에 도달했을 때 받는 일반적 형태의 국민연금을 말한다.

따라서 '부부 모두 국민연금에 들더라도 노후에 한 명만 연금을 받을 수 있을 뿐'이어서 부부가 모두 국민연금에 가입하면 손해라는 것은 잘못된 정보다.

다만 부부가 각자 노령연금을 받다가 한 사람이 먼저 숨지면 '중복급여 조정'으로



남은 배우자는 자신의 노령연금과 숨진 배우자가 남긴 유족연금 중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한 가지를 골라야 한다.

중복급여 조정은 사회 전체의 형평성 차원에서 한 사람에게 두 가지 이상의 연금 급여 수급권이 생겼을 때 하나만 선택하도록 함으로써 더 많은 수급자에게 급여 혜택이 돌아가도록 한다는 취지다.

국민연금은 자신이 낸 보험료만큼 받아 가는 민간 개인저축 상품과는 달리, 일하지 못하게 돼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 것에 대비한 사회보험이기에 소득 재분배 기능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자신이 받는 노령연금보다 유족연금이 훨씬 많아서 유족연금을 고르면 자신의 노령연금은 못 받고 유족연금만 받을 수 있다. 자신의 노령연금을 고르면 유족연금의 일부(30%)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유족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이나 노령연금 수급권자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장애 연금 수급권자가 숨지면 이들에 의존해 온 유족이 생계를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지급하는 연금 급여다.

최영호 기자 cyh2@skyedaily.com

부정선거 '도둑과 파출소장' 비유한 글 화제

김재수 前 ROTC애국동지회장
 정부의 침묵 우회비판 큰 반향



참정권 도둑질에 대한 인식이 국민 사이에 날로 확산하는 가운데 부정선거 의혹과 이에 대해 침묵하는 정권을 '도둑과 파출소장'에 비유한 글이 잔잔한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김재수(78사진) 전 ROTC애국동지회 회장은 최근 선거 부정 의혹 규명을 바라는 국민이 함께하는 단톡방에 현 정부의 침묵을 우회적으로 비판하는 글을 올려 큰 반향을 얻고 있다.

김 전 회장은 "4년 전 이웃집에 도둑이 들었다"는 말로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4.15총선)를 계기로 폭발적으로 불거졌던 선거 부정 의혹을 빗대었다.

이어 "동네 사람들(시민)이 온갖 증거를 들이대고 골목 골목에 모여 저놈들이 도둑이 틀림없다고 야단들이지만, 도둑이라고 지목받는 놈들은 아무 대꾸나 할 의도 하지 않고 있다"며 "그들이 도둑질하지 않았다면 무고로 고소하든지 강력하게 항의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또한 "동네 사람들은 수집한 증거와 증거물들을 가지고 파출소에 가서 이웃집에 도둑이 든 것이 분명하니 불만해서 못 살겠다고 신고했지만 파출소 소장은 이해 당사자(낙선한 국회의원들과 패배한 정당)는 신고하지 않는데 왜 동네 사람들이 야단이냐고 되돌려 보냈다"고 개탄했다.

그러고는 "도둑맞은 당사자가 아무 말을 하지 않자, 답답한 동네 사람들은 골목마다 매주 모여서 도둑놈 잡으라고 난리들"이라며 어느덧 정권이 바뀌어 여당이 된 국민의힘과 정부의 기이한 태도를 꼬집었다.

그는 "그동안 삭발도 해 보고 이제는 상여 시위까지도 해 봤지만 이장·반장·파출소장은 꿈쩍도 않는 데 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나"라며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부터 4년 전 4.15 선거에 부정이 있었다며 몇 년을 뛰어다녔지만 더 이상

뛰어다닐 필요가 있는가 회의가 든다"고 인간적인 고뇌를 드러내기도 했다.

그러면서 "4년 전보다 도둑들의 수법이 치밀해졌고 파출소장은 골치 아픈 일을 왜 우리가 나서며 모른 척 하고 있어 투표한 대로 개표한다는 믿음 하나 주지 못하는 나라라면 사상누각이 아닐까 생각한다"며 "그래도 우리는 이 동네가 대만처럼 공정한 선거를 치를 수 있도록 끝까지 투쟁해야 한다. 자유는 거저 얻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정곡을 찔렀다.

김 전 회장은 김천초·중·고교와 연세대 도서관학과(현 문헌정보학과)를 졸업하고 중앙대에서 정보학 석·박사를 마쳤다. 1972년 ROTC 8기 육군 중위로 전역하고 국방과학연구소에 들어가 방위산업 초창기에 국방의 초석을 다지는데 기여했다. 문과 출신으로는 입지전적으로 기술정보센터 본부장까지 오른 뒤 2006년 정년퇴직 후 대학 대우교수와 방산업체 부사장 및 고문 등을 거쳤다.

그는 공직직업 집회에서 단상에 올라 직접 쓴 원고로 연설한다. 보수 유튜브 방송들이 연설 실황을 중계할 만큼 명문이고 탈변이다. 스탠드 오어 다이(Stand or Die) 즉 사수 아니면 죽을 각오로 당당하게 싸워 이기자"는 자세로 주말 집회에 참여하는 데 헌신의 힘을 쏟고 있다.

허검 기자 kh@skyedaily.com

이번엔 공군 초급장교... 軍 사망사고 잇따라

영외 독신자 숙소에서 숨진 채 발견... 일주일 새 4건
 사망 훈련병 열차러 중대장 과실치사 혐의 수사

군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연이은 육군 훈련병-육군 장교 사망에 이어 일주일 새 네 번째 사망 사건이 터졌다. 공군 20대 초급 간부가 군부대 인근 숙소에서 사망한 채 28일 발견됐다. 육군 모 부대 소속 위관급 장교가 차량에서 숨진 채 발견된 지 하루 만이다.

29일 공군에 따르면 27일 경기도 모 부대 간부 A씨가 영외 독신자 숙소에서 숨졌다. A씨가 출근하지 않자 군부대 동료는 A씨를 찾았다 숨진 A씨를 발견하고 경찰

과 소방 당국에 신고했다. 현장에는 유서로 추정되는 메모도 함께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공군 관계자는 "군과 경찰이 정확한 사망 원인을 조사 중이다"고 말했다.

최근 군 내에서는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27일 오후 강원도 육군 모 부대 소속 위관급 장교가 자가 차량에서 사망한 채 발견됐다. 당시 양구군 국토정중앙 이면 야촌리 인근에서 "차량에 연기가 나고 있다"는 주민의 신고 받고 출동한 경찰

과 소방 당국이 신원을 확인한 뒤 해당 장교를 군 당국에 인계했다.

23일 오후 5시20분쯤 강원도 인제 모 부대에서 훈련병 1명이 군기 훈련 중 쓰러졌다. 이 훈련병은 민간 병원으로 응급 후송돼 치료를 받았으나 상태가 악화해 25일 오후 사망했다. 군기 훈련을 지시한 중대장(대위) 등 간부 2명이 업무상과실치사죄와 직권남용가혹행위죄로 수사를 받고 있다.

21일에는 육군 제32보병사단 신병교육대에서 수류탄 투척 훈련을 하던 중 수류탄이 폭발해 훈련병 1명이 숨지고 소대장 1명이 크게 다쳤다. 사고 원인은 사망한 훈련병이 수류탄 투척을 위해 안전권을 뽑았으나 던지지 못해 폭발한 것으로 알려



박인수(왼쪽) 육군참모총장이 28일 오후 전남 나주시 한 장례식장에 마련된 '군기훈련 사망 훈련병'의 빈소를 조문한 뒤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졌다.

한편 23일 국방부 영내에서 합동참모본부 소속 40대 중령 간부가 체력 검정 중 쓰러져 일시적으로 심정지 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당시 합참 동료와 군의관 등이 심폐소생술(CPR)을 실시해 간부는 현재 대화가 가능한 수준까지 건강을 회복한 상태다.

장혜원 기자 hjjang@skyedaily.com

보행자가 보이면

잠시 멈춤, 보행자 배려의 시작입니다.

일단 멈춰주세요!

정지
STOP

천천히
SLOW

국토교통부
한국교통안전공단